

해외 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후기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최영훈 차장
총무팀

시찰 개요 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은 해외 유관기관 및 주요 언론사를 방문하여 그 나라의 언론현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살펴보고, 위원회의 제도를 소개하는 등 상호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박 8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시찰자는 김길소 부위원장(강원중재부), 성지호 중재부장(서울제3중재부), 유의선 위원(서울제1중재부) 이상 세 분이었고, 필자는 사업 담당 기획팀의 윤치경 씨와 함께 수행자로 참여했다.

그 동안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을 주로 다녀왔고, 이번 방문국 두 나라는 처음으로 채택됐다. 방문 기관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최초의 방송사 RTM(Radio Television Malaysia), 연방법원(Federal Court)이었고,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최대 영자신문사 The Straits Times 등 4곳이었다. 현지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 25℃ 정도로 고온 다습했다.

말레이시아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인구는 3천만,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다. 민족 구성은 말레이계 60%, 중국계 25%, 인도계 7%의 분포를 보이고, 국교는 이슬람교, 공용어는 말레이어지만 중국계와 인도계는 각자 고유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영어가 널리 통용된다. 말레이의 독특한 영어 발음이 친숙하게 들려 아직도 인상에 남는다.



시찰단이 Tun Arifin Bin Zakaria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장(좌측 세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언론출판법’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제1여당이 최대 언론그룹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신문을 발행하려면 인쇄 자격과 출판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내부부장관이 출판 허가 갱신 거부, 유보 및 취소권을 갖는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2014년 말레이시아 언론자유지수를 180개 국가 중 147위로 발표했다.

한편, 1998년에 설립된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Malaysia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는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보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고 한다. MCMC 산하의 불만처리위원회에서 블로그, SNS, 웹사이트 등 인터넷 콘텐츠로 인한 각종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서울보다 약간 큰 나라.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 13개 주 중에 하나였으나 1965년 독립했다. 따라서 여러 환경이 말레이시아와 비슷하다. ‘언론출판법’에 의해 책임 있는 기사를 쓰도록 하는 통제된 언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찰단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방문해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간담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가 10개의 신문사를 전부 소유하여 통합 관리하며, ‘싱가포르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5개의 TV 방송과 12개의 라디오 방송을 모두 소유 관리하고 있다. 출판 허가 및 매년 갱신제도, 언론자유지수(149위)도 말레이시아와 비슷하다.

올해의 동남아국 시찰은 2006년 유럽 시찰 시에 느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유럽에서는 한두 사람이 나와 다소 사무적인 말투로 응대하여 처음 방문지에서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런 우려는 최초 방문기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방문처마다 우리 시찰단에 맞춰 고위 인사들이 미리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환대하고 대화를 성의껏 이끌어 주었고, 우리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었다. 간담 이후에는 다과까지 마련해 주어 그 나라 손님접대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와 가까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어서 그런지 손님 접대 문화에서 우리와 비슷한 정성이 보였고 손님은 정(情)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와 사람들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최초이자 최대 방송국인 RTM에서는 우리 방문단의 모습을 촬영하고 부위원장님을 단독 인터뷰하여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든지 스스로 변할 수 없었던 건 우리의 언론조정 중재제도가 우수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었다.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가 있고, 언론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위원회를 안내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우리도 앞으로 언론환경이 변하게 된다면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듣는 정도로 큰 만족이었다. “Trima Kashi!¹⁾ 한국에 놀러오세요!”

1) 트리마 카시: 말레이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